

韓國의 近代 西洋印刷術 流入의 影響에 관한 研究

A Study on the Influence of the Inflow of
Western Printing Techniques in the Premodern Era of Korea

현 영 아(Hyun, Young-Ah)*

◁ 목 차 ▷

1. 서론	4.1 계몽도서
2. 근대사회의 변화	4.2 국학도서
2.1 사회적 변화	4.3 신소설
2.2 신문화의 수용	4.4 교과서
3. 서양 인쇄술의 유입	4.5 종교서
3.1 서양 인쇄술의 유입	5. 결론
3.2 전통 인쇄술의 계승	<참고문헌>
4. 근대 서적의 출현과 특징	

<초 록>

본 연구는 朝鮮 後期 西洋의 문물이 수용되면서 새로운 서양 문화에 대한 충격과 함께 밀려오는 外勢의 물결에 대한 불안과 이를 극복하고자 啓蒙을 위한 新文化의 수용은 자연스런 귀결이었다. 특히 이는 재래적인 인쇄 방법으로는 역부족으로 서양의 印刷術을 導入시키면서 근대 한국 문화의 새로운 장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런 관점에서 현대 인쇄의 효시라고 하는 「漢城旬報」의 발행시기인 1833부터 韓日合邦의 1910년까지의 한국의 近代 書誌史 연구를 위해, 당시 西洋 印刷術이 流入되는 사회적배경과 이를 통해 신문화의 수용으로 인한 한국의 근대 精神的 思想的 변화를 담은 서적들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韓國 近代 社會의 사회적 문화적 변화 배경과 서양인쇄술의 유입 과정 및 傳統的 우리 인쇄술의 근대화를 살폈다. 또한 당시 新聞들에 나타난 廣告와 圖書館 所藏 書物 등을 통해 근대서적들의 출현과 특징을 애국계몽서, 신소설, 교과서, 종교서, 국학서 등으로 세분하여 살폈다. 이로써 한국에서의 근대 서양인쇄술의 유입은 당시 독서 인구의 확산과 신문화의 수용으로 인한 국민 계몽은 물론 문명의 개화를 촉진시켰음을 밝혔다.

要語 : 개화기 도서, 한국근대서지사, 한국근대인쇄사

* 명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yahyun@mju.ac.kr)

접수일: 2007년 5월 3일 최초심사일: 2007년 5월 5일 심사완료일: 2007년 6월 21일

<ABSTRACT>

The study has been conducted on the assumption that an effort to accept new culture in order to enlighten society was a natural response against the fear of foreign waves rushing toward and the shock from western culture which was newly introduced in the late Joseon Dynasty. The introduction of western printing techniques could open a new chapter in the premodern era of Korean culture, because the traditional printing method was beyond its capacity. In this study, in order to investigate the history of bibliography in the premodern era of Korea, examined was the period from 1833 when Hansungsoonbo as the symbol of modern printing was published, to 1910 when the Korea-Japan Annexation began. In this study, an attempt was made to figure out the social background of the inflow of western printing techniques and the features of the books which represented spiritual and ideological changes caused by the acceptance of new culture during this period. For this purpose, the socio-cultural background of premodern Korean society, the inflow procedure of western printing techniques, and the pre-modernization of our traditional printing method were researched. Also, through the advertisements of contemporary newspapers and the library collections, examined were the appearance and features of premodern books categorized into patriotic enlightenment, history & geography, Korean language & literature, social science, autobiography, new fiction, textbook, religion, and national literature. The appearance of premodern books resulted in: firstly, the expansion of reading population; secondly, the civilization and enlightenment of the public; thirdly, the new method of premodern publishing led by the government; fourthly, the adoption of premodern publication not simply as Westernization, but also as the modernization of our conventional printing techniques. In this study, it was made clear that during the premodern era of Korea, our traditional printing styles and techniques were still well maintained, and developed by newly adopting the rational Western printing techniques.

Key words : Books in the Premodern Era of Korea, History of Bibliography in the Premodern Era of Korea, History of Printing Art in the Premodern Era of Korea.

1. 서론

지금까지 印刷史하면 한국의 傳統印刷의 기술과 방법에 대하여 많은 연구를 하여왔다. 그러나 朝鮮時代 후기 西洋 文物이 수용되면서 새로운 서양 文化에 대한 충격으로 인하여 社會 變化를 가져오게 되었는데, 이때 그 요인 중의 하나는 서양 인쇄의 流入이었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外勢의 물결이 밀려오는 데에 따른 近代 初 한반도의 모든 不安과 이를 극복하기 위해 첫째 서적 普及이 가장 중요하였다. 종래 전통 인쇄 방법으로는 과도처럼 밀려오는 外來 文化의 의식을 담기에는 너무 역부족이었으므로 새로운 機械化된 인쇄 방법을 導入하게 됨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것이다.

지금까지 傳統 印刷術의 중요성은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근대 서양인쇄술의 流入에 대하여는 몇몇의 발표만을 볼 수 있었다. 우리는 이제 전통적 인쇄술은 당연히 중요하고 또한 더 깊이 研究가 되어야하는 것은 마땅하나 그와 아울러 한국의 近代 文化의 물결을 담은 서양 인쇄술의 役割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觀點에서 한국의 近代 書誌史 연구의 一環으로써, 근대 서양 인쇄술이 流入되게 되는 社會적인 배경과 이를 통해 신문화의 수용으로 인한 한국의 近代 精神的 思想的 變化를 담은 서적 發刊의 특징 등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로써 당시 混亂의 소용돌이 속에서의 서양 인쇄술의 공헌도를 다시 한 번 재인식하고 이를 위해 近代 初期 즉, 한국의 서양 인쇄술의 시작으로 보는 「漢城旬報」의 發行때부터 韓日合邦이 되는 시기까지 인출된 단행본들의 특징을 살펴 한국의 근대 서적 인쇄술로 인한 시대적 書籍文化의 變化를 밝혀보고자 한다.

2. 근대 사회의 변화

2.1 사회적 변화

近代 開港 이후 한국은 그 전에 거의 예기치 못했던 勢力을 대하게 되면서 변화에 直面하게 되었다. 日本을 비롯한 西歐 勢力의 침투는 그러지 않아도 붕괴되고 있던 봉건 末期의 한국 사회에 심한 충격을 가하면서 한국사회의 변화의 중요한 요인으로 등장했다. 한국은 당시 世界史의 흐름이라 할 서세동점의 상황으로 점차 빠져들면서, 이 같은 세계사적인 挑戰에 수동적이긴 하지만 對應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국 사회는 外部의 충격으로 변화하기 전에, 이미 내부의 自生的인 각성과 전통에 의해 사회변화를 시도한 적이 있었다. 17세기 이후에 나타났던 實學的인 改革이 그것이었다. 그러나 19세기에 이르면 학과로서의 實學은 세도정치와 등장과 궤행성으로 더 持續될 수가 없었다. 王朝의 權威와 전통성을 회복하여 國力을 신장시키려는 大院君의 노력도 봉건 말기의 조선조를 근대사회로 변화시키려는 改革意志와는 동떨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서세동점의 추세 앞에서는 閉鎖的인 자기 방어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러나 實學적인 改革意志는 봉건 말기의 혼란 속에서도 자생적인 근대화에 일정하게 기여하고 있었다.

外部 世界 특히 西洋에 대해서는 거의 단절되다시피 했던 한국은 ‘洋夷’를 맞으면서 자기 變身을 피하지 않을 수 없었다. 西洋의 近代文物을 수용하는데 더 이상 시간을 끌 수가 없었기에, 우선 中國과 日本을 통해 서양을 배우려고 노력했다. 해외에 使節團을 파견하고 서양인들을 招聘하여 世界를 이해하는 데에 힘을 쏟았다. 政治와 制度를 改革하기 위해 서양문화와의 접촉을 기피할 수가 없었다. 실학적 자생성에다 外來的인 자극은 힘겹지만 從來의 封建社會를 변화시키는 基本的인 역량으로 충화될 수 있었다.

서세동점의 추세 속에서 한국이 자신을 保全하기 위한 노력은 결국 변화를 통해서만이 가능했다. 그 변화는 일차적으로 정치제도와 政府의 기구 改編, 新式

軍隊의 養成과 외부와의 경제 교류 등으로 나타났다. 外勢의 侵略에 대비하면서 國權을 보위하려는 武力運動과 民間運動도 나타났다. 東學農民運動과 의병운동 및 獨立協會運動과 애국계몽운동이 그런 것이다. 이러한 운동은 民族運動의 성격을 띠면서 한국 근대화의 내실을 다지는 운동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즉 신문화 운동이 나타나면서 사회 여러 方面에 걸쳐 나타난 새로운 變化의 社會를 맞이하게 되었다.¹⁾

2.2 新문화의 수용

문화 개방 이후 새로운 外來 歐美 문화가 波及됨으로 말미암아 문화적인 領域에도 많은 變化가 일어났다. 그것은 내재적인 實學思想을 繼承하고 外來 歐美 문화의 影響을 받은 새로운 지식인들이 나라의 自主 獨立과 富強을 이룩하기 위하여 內修外學의 기치 아래 文明開化와 教育 文化 事業에 주력하여 政府 施策에 반영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²⁾

開港 直後부터 朝鮮政府는 서양기술과 그 技術 産業의 生産품들을 도입하는데 어느 정도 積極性을 보였다. 조사사찰단을 일본에 보내 武器製作所를 비롯한 각종 施設들을 視察하고 近代 技術에 대한 見聞을 넓히게 한 것이나 영선사 일행과 함께 청년학도 96명을 청나라에 派遣하여 양문운동의 일환으로 建設되고 있던 각종 工場에 가서 무기·화학·탄약의 製造業과 기계공학·전기·화학 등의 技術을 배우게 한 것을 비롯하여 이후에도 각종 技術訓練生을 일본에 파견하여 근대기술을 습득케 했다. 요컨대, 開港期는 새로운 사상과 근대적 기술의 도입이 계속 추진되던 시기였다.

이 시기 西洋의 近代文化를 접하게 된 朝鮮 政府는 전통적 儒敎 教育을 청산하고 西歐 新문화의 섭취를 위한 新式 教育을 실시했다. 한편 帝國主義 열강의 침략에 맞서기 위해 신식 教育이 필요함을 절감한 民間 유지들에 의해서도 民族

1) 李萬烈, 「개요」, 「한국사」(서울 : 국사편찬위원회, 2000), 1-10.

2) 김경태 등, 「韓國文化史」(서울 :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2), 277.

教育運動이 폭 넓게 추진되었다. 이와 함께 朝鮮에 진출한 基督教계 宣敎 團體들에 의해 선교 계통의 學校도 세워졌다. 이러한 新式 教育機關의 설립이념은 선진적인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한 개화사상의 보급과 민족주의 정신을 강조하고 있었다.

이런 과정으로 인하여 의식세계가 확대되면서 性理學的 價値觀이 붕괴되어가고, 朝鮮 官僚의 오랜 思想統制 政策도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성리학 이외의 각종 宗教運動이 활발히 展開되었다. 日帝의 侵略에 맞서 東學이 그 성격을 轉換시켜가는 한편, 大倣敎가 성립되어 檀君에 대한 신앙을 체계화했다. 또한 儒敎와 佛敎계에서도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났으며, 天主敎는 信仰의 自由가 확보되고, 개신교가 새로 들어와 布敎되기 시작하였다.³⁾

한편 이러한 근대화 과정에서 民衆世界가 本格的으로 文字 생활권 안으로 들어오고, 언어·문자생활의 機能이 擴大됨에 따라 言文一致의 필요성이 강해지므로 從來의 언문체를 잇는 국문체와 국한문체가 대두됐다. 이로써 이러한 國漢文體가 公的文體로 채택되는데 이는 문자 생활의 근대화의 進展으로 볼 수 있었다. 이 외에도 소설문학에 있어 신소설이라는 새로운 形態가 나타나다.

이상과 같이 이 시기에 思想界, 科學技術方面, 敎育과 宗教 및 文學 등 다양한 方面에서 外來文化의 영향을 받으면서 새로운 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시기였다.

3. 서양 인쇄술의 유입

3.1 서양인쇄술의 유입

당시 선각자들은 주로 서적을 통하여 國家나 民族에게 必須的인 知識과 情報를 보급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新知識의 보급과 민족 傳統의 繼承, 그리고 愛國心을 배양하기 위한 絶對的 도구로서 書籍을 認識하고 있었다. 「대한매

3) 강만길, 「고쳐쓴 한국근대사」(서울 : 창비, 2006), 374.

일신보』는 지식을 啓發하기 위해서는 첫째, 新聞·雜誌를 많이 읽어야 하고 둘째, 문명한 新書籍을 널리 읽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丹齋 申采浩는 일찍이 『舊書刊行論』에서 “서적을 刊行하는 사람은 한 나라의 인심·풍속·정치·실업·문화·무력을 產出하는 사람이며, 書籍이 없으면 국가도 없을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丹齋는 또 英國이나 獨逸이 부강할 수 있었던 것은 부존 資源이 많아서이거나 무력이 강해서가 아니라 書籍의 힘이었음을 指摘하면서 ‘금전, 광산, 창과 포와 같은 武器도 나라 부강의 도구이지만 이러한 부강의 도구를 만드는 것은 서적’이므로 ‘서적을 刊行하여 널리 普及하는 사람이 國民의 일등공신’이라 했다.⁴⁾

1896년 6월 2일자 『독립신문』은 論說에서 민간에서의 印刷事業 참여를 다음과 같이 적극 권유하였다. ‘남의 나라에서는 冊 만드는 사람이 나라 안에 몇 천명 씩이요 책 회사들이 여러 백 개라 책이 그리 많이 있어도 달마다 새 책을 몇 백 권씩 만들어 이 會社하는 사람들이 富者들이 되고 또 하나의 큰 사업도 되는지라 朝鮮도 이런 회사 하나 생겨 각종 西洋 책을 국문으로 번역하여 出版하게 되면(중략) 일 년 안에 큰 利가 남을 것을 믿고, 이 회사하는 사람들은 조선에 큰 사업하는 사람들로 생각하노라, 이런 일을 정부에 미루고 아니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니 경향 간에 나라와 백성도 사랑하고 큰 장사도 하려는 사람들은 이 일 시작하기를 바라노라’⁵⁾와 같이 民間의 印刷事業 참여를 적극 권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一般 大衆을 위한 出版은 갑오개혁에 의한 신학제의 수립 이후 圖書 大衆化에 따라 活氣를 띄게 되었다. 이와 같이 이 시기 印刷 및 出版의 중요성에 대한 認識이 확산되면서 書籍 印刷의 필요성을 깊이 느끼게 되었던 것이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新文化의 유입으로 결국 다량의 인쇄가 필요하게 됨은 물론이었다. 傳統的인 古印刷 방법으로는 빠른 變化를 수용할 수가 없었음은 당연하였으 며 이로써 빠르게 신문화 서적 및 사회 변화를 따라 갈 수 있는 방법으로서 西洋

4) 신채호, 『舊書刊行論』(서울 : 1908).

5) 『사설』, 『독립신문』 1896, 6, 2.

의 종지와 印刷方法이 유입되게 되었다.

한국의 금속활자 印刷術은 서양보다 2世紀 정도나 앞섰으면서도 다른 나라와의 교류 없이 獨自의으로 실시해 그 이상의 發展을 보지 못하였다. 그 결과 近代에 접어들어 새로운 인쇄술을 外國에서 도입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나라에서 책의 근대 인쇄는 고종17년(1880), 일본 요코하마에서 崔智燾의 글자를 字本으로 鑄造한 한글 新鉛活字로 찍은 「韓佛字典」이 효시라 하겠으나, 政府에서 高宗 20년(1883) 처음으로 統理衙門에 博文局을 설치하고 新活字를 日本에서 導入하여 「漢城旬報」를 찍어 발행한 것이 우리나라의 公式的인 近代 印刷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西洋의 인쇄술은 당시의 人文主義나 文藝復興 운동과 더불어 유럽 전역으로 擴大되었다. 또 인쇄수가 늘어나면서 대량 高速인쇄를 추구하기 시작하였다. 1790년경 파리에서 연판인쇄술이 開發되었는데 이는 조판된 원판을 진흙이나 금속으로 찍고, 이를 이용해 똑같은 연판을 여러 장 만드는 방법이었다. 이로 인해 동시에 여러 대의 인쇄기를 돌릴 수 있어 大量印刷가 가능 해 졌다. 한 편 미국에서는 산업 혁명기에 접어들면서 인쇄에 증기 기관을 이용함으로써 인쇄의 動力化에 성공하였고, 1789년에는 철제 인쇄기가 발명되었다. 1811년 독일 인쇄업자 독일인 Friedrich König는 평판 원통식 증기 인쇄기를 만들어 인쇄 기술의 革新을 가져왔다.⁶⁾ 이 인쇄기로 1814년에 런던의 「The Times」를 1,100 장 찍어냈다. 현대의 신문 인쇄에 이용되는 高速 輪轉機는 1846년 美國의 알호우 회사(R. Hoe & Company)가 개발하여 필라델피아의 <Public Leage>誌의 인쇄에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한편 植字 방법에서도 改善이 이루어져 1886년 Ottman Mergenthaler는 Linotype 이라는 植字機를 처음으로 개발하였다. 이 인쇄기는 꾸준히 改善되어 종이 공급의 機械化에 성공했고, 1880년대에는 식자기를 linotype과 monotype의 鑄植機로 대체하면서, 속도가 시간당 1만 자에서 1만 2천자로 발전하였다.⁷⁾

6) 최 백, 「출판학」(서울 : 한나래, 1999), 106.

7) 서지학개론 편찬위원회, 「서지학 개론」(과주 : 한울, 2004), 147.

한편 韓國에 최초로 서양식 抄紙機가 들어온 것은 1884년 김옥균에 의해서였다. 마포 양화진에 설치하여 가동했으나 실제로는 거의 役割은 하지 못하였다. 실질적으로 가동한 것은 1901년 조지소를 신축하고 지폐용지를 製造하기 시작한 그 이듬해부터였다. 그러나 종이의 需要를 감당하지는 못하였고, 1917년 일본의 후지제지주식회사 工場이 신의주에 설치되면서부터 대량生産에 들어가게 되었다. 手抄紙도 叩解과정에 간단한 機械를 사용하거나 가성소다를 이용하여 木質素를 제거하였으며, 화학약품으로 黃蜀蔡(닥풀)를 대신하였다. 특별한 양식의 것이 아닌 경우 西洋式 機械紙가 전통적 종이를 대체하여 사용하게 되었다.⁸⁾

3.2 전통인쇄의 계승

이와 같은 新式인쇄기를 導入하여 出版에 活用하였으나 近代 출판물의 편집 및 조책 양식·자재를 보면 우리의 印刷 傳統을 구체적으로 變化 발전시켜나간 과정을 엿볼 수 있다. 西洋의 新式 인쇄술이 도입된 뒤에도 本文의 편집 체제나 活字의 크기, 장책 방식, 용지 등에서 오랫동안 전통적인 방식을 보존시키면서 踏襲하고 있었다. 아직도 傳來의 銅活字들이 鉛活字와 함께 圖書 印刷에 널리 사용되었으며, 특히 갑오개혁 이후에 學部의 편집국에서 獨自의 木活字를 만들어 학생용 教科書들을 印刷 出版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古活字가 新文化 운동을 展開한 이후까지 鉛活字와 함께 그 實用的 가치를 지니고 있었음을 말해 준다. 무엇보다도 新式 鉛活字 이외에 木板 印刷 또는 朝鮮時代에 鑄造된 활자들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고, 인서체 목활자, 학부신체 목활자를 따로 만들고 부족한 활자는 校書館에서 사용하던 後期校書館 鐵活字를 섞어 사용하기도 하였다. 당시 印出된 書籍의 체제는 B5판(사륙배판)크기에 5호와 4호로 활자를 본문에 사용하였다. 조판 체제도 한결같이 全段組인데다 行間에 駭선을 넣고 있을 뿐 아니라 版面 전체를 검은 선으로 싸고, 표지도 도련지에 능화관을 눌러 처리하였으며 版式도 전통적인 韓籍의 편집, 粧冊 양식인 五針眼裝幀을 취하고

8) 위의 책. 42-43.

있었다. 일부는 輸入 양지를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朝鮮紙가 기본이었다. 흔히 볼 수 있었던 古書들과 같은 編輯 레이아웃과 체제가 이 時期의 印出 樣式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이외의 用紙에 있어서도 教科書의 경우 편집·체재나 지질 등에 따라 學部 前期(1895~1905년)와 學部 後期(1905년~1910년)의 것이 확연히 구별된다. 前期에서는 전통적인 韓紙를 사용했고, 1890년 후반부터는 극히 제한적인 범위이기는 했으나 洋紙를 검용하기도 했다.⁹⁾

이는 우리가 開發하여 오랫동안 蓄積시켜 온 內在的 출판 기술과 역량의 바탕 위에서 西洋의 신식 印刷術을 活用하여 우리 出版文化를 獨自的으로 發展시키 나가려는 의지를 보여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것은 수구 思想의 고루한 생각에서라기보다 圖書의 裝幀美로서 완벽한 調和를 이루고 있는 우리나라 옛적의 진아함에 대한 自負心도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다. 造本 양식으로 西洋式의 印刷機術이 機能적이긴 해도 중후한 맛은 韓籍만 못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런데 차츰 活字나 인쇄술의 발전과 편집 기술의 進展에 힘입어 1920년대에 와서는 책의 形態도 완전히 현대적인 인쇄 體裁로 탈바꿈하게 된 것이다.

4. 근대 서적의 출현과 특성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鉛活字에 의한 근대식 출판은 1883년 博文局의 설립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博文局은 갑신정변으로 인해 기구한 運命이 되어 제대로 活動하지 못하고, 따라서 官에서의 出版도 1894년 갑오경장 때까지 별반 성과를 얻지 못하였다. 官에서의 본격적인 출판은 1895년 학부령의 반포 이후 학부 편집국에서 教科書를 출판하면서부터이다. 이후부터 韓日合邦이 되던 1910년 시기의 출판물들은 애국계몽서, 역사지리, 국어국문, 사회과학, 전기류, 신소설, 교과서, 종교서, 국학관계 등으로 세분하여 각기 그 性格을 경향에 따라 살펴보면

9) 이종권 외, 「우리 출판 100년」(서울 : 현암사, 2001) 48-49.

다음과 같다.

4.1 애국계몽도서

「미국독립사」·「羅馬史」·「譜法傳記」·「월남망국사」·「법란서신사」·「만국사기」·「세계식민사」·「만물사물기원역사」·「서사건국지」·「이태리건국삼결전」·「華盛頓：워싱턴전」·「피득(彼得：피터)대제」와 같은 외국의 建國史나 興亡史, 위인전 등을 통하여 獨立 精神을 일깨우고자 기도하였고 각종 新學問을 소개하는 「19세기 구주문명진화론」·「태서물정」·「세계전도」·「정치원론」·「산술신서」·「신찬측량학」·「초등생리학대요」·「양잠신설」·「인공양잠감」·「신편가정학」 등이 출판되었다.

이 무렵 우리나라의 당면한 현실에 비추어 이러한 일반 啓蒙 도서들은 한결같이 國權 回復을 위한 民族意識과 독립 사상·개화사상·민족의 자강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出版의 목적의식이 뚜렷했다. 그래서 歷史書와 傳記가 가장 많고 소설조차 그런 思想을 담은 書籍 出版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¹⁰⁾

4.2 국학 도서

국어 보급에 관한 서적 가운데 유길준의 「大韓文典」·李鳳雲의 국문정리·周時經의 「국어문법」 등은 저자가 직접 출판까지 한 책들이고 池錫永의 新訂國文, 주시경의 「國語文典音學」·「말의소리」 등이 출판되어 國語 정리와 국어의 새로운 이해 體系를 성립시키려는 시도들이 시작되었다.

한편 民族 意識의 고취와 더불어 傳統 文化에 대한 자부심은 「목민심서」·「흙흙신서」·「동국사략」·「동국명장전」·「국조인물지」·「이충무공실기」 등 古書 復刊 및 해설 간행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육당은 1910년 朝鮮光文會를 조직하고 古典 정리 사업에 착수하여 「東國通鑑」·「東國兵鑑」·「練藜室記述」·「擇里

10) 위의 책, 36.

志」·「東國歲時記」·「雅言覺非」·「熱河日記」 등을 新文館에서 인쇄 간행하였다. 柳槿·李寅承이 편집한 「新字典」도 여기서 간행하였다. 회동서관이 1909년에 발행한 池錫永의 「字典釋要」는 初版 5,000부를 발행한 지 반년이 못 되어 再版에 들어가 20판을 거듭할 정도로 대중적인 인기를 끌었다고 한다.¹¹⁾

4.3 신소설

신소설 출판도 국민 정신의 啓發·自由 思想의 高揚·風俗 改良, 그리고 實業에 대한 民衆의 啓蒙과 近代의인 時代 의식을 고취하는 手段으로 이루어졌다. 신소설은 그 主題나 등장 人物의 類型이 구설의 전통적인 틀에서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니었으나 語文 一致의 순한글로 쓰여진 文章을 사용하였으며 주인공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前近代의인 倫理, 道德을 배격하고 新教育의 필요와 民族의 自主 獨立을 부르짖음으로써 啓蒙 文學의 구실을 하였다. 따라서 小說의 主題도 자주독립·신교육·여권존중·계급타파·기존의 弊習인 迷信 타파 등을 다루었다. 즉 自主 獨立을 주제로 다룬 것으로 李人植 「血의 淚」, 李海朝의 「자유종」 등에 강하게 反映되었고, 新教育은 李人植의 雉岳山, 崔瓚植의 추월색, 「雁의 聲」 등에 나타나 있다. 또 「치악산」·「자유종」·「鬼의 聲」 등은 계급타파를 주장하고 「春外春」·「홍도화」·「추월색」 등은 早婚 禁止·과부 재혼·기성가족 제도에 대한 反撥로 나타난 自由結婚 사상도 담고 있다. 그 밖에 安國善의 「禽獸會議錄」 처럼 정치 상황을 諷刺한 것도 이때 출판되었다.

1907년부터 1910년까지 4년 동안에 國內 作家에 의한 신소설 내지 변안 소설만도 26종이나 출판되었다. 또한 최남선은 그가 發行하는 잡지 소년 에 「해에게서 소년에게」란 신체시를 발표하여 현대시의 영역을 開拓하였으며, 최초로 翻譯된 西洋 文學에 속하는 「天路歷程」은 초창기 우리 출판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책으로 꼽힌다. 「로빈슨표류기」 등 外國文學作品의 번역판도 나오기 시작하였다.

한편 우리 나라 출판의 선각자 육당 최남선은 「삼설기(상·하권)」·「심청전」·

11) 위의 책, 38.

「남훈대평가」·「홍길동전」·「홍부전」·「사씨남정기(상·하권)」·「전우치전」·「저마무전」 등 고전 소설을 모아 「六錢小說」을 발행하고, 「十錢叢書」를 통해서 「걸리버여행기」 등 해외 문학을 번역·소개하는 일에 힘을 쏟았다.¹²⁾

4.4 교과서

이 시기는 새로운 價値觀에 입각한 새로운 人間 類型의 養成이 시급하고 절실히 요망되던 時代였다. 정부는 근대화에 필요한 人才 양성을 전담할 政府機關으로 從來의 禮曹를 폐하고 學務衙門을 발족시켰다. 이어 학부관제(1895년 3월 25일)와 소학교령(1895년 7월19일)을 잇따라 制定하고 學府 編輯局으로 하여금 敎科用 도서의 翻譯, 編纂, 檢定, 圖書의 購入·保存·管理, 도서 印刷에 관한 事項을 管掌시켰다. 이에 따라 學部는 직접 敎科書를 편찬하고 검정을 거친 敎科書만 ‘교과용 도서’로 사용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新敎育 체제가 갖추어지기 이전부터 새로운 知識의 普及을 통해 발달된 西洋의 文物을 재빨리 수용하여 國力を 培養하겠다는 열의와 열정으로 교과서를 임의로 開發하여 普及해 오던 출판인들은 새로운 제도에 맞춘 敎科書 출판에 힘을 기울이게 되고, 私立 學校의 증가와 날로 뜨거워지는 敎育열로 이들 교과서의 需要는 놀라운 정도로 급격히 증가한다.

근대적인 敎育 체제가 確立된 1895년부터 日帝에 합방되던 1910년까지의 교과서 刊行 종수는 560여 종으로 推定하고 있으나 敎科書 需要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敎科目的의 지속적인 增加 추세로 미루어 대단히 많은 종류의 교과서가 開發되었을 것은 틀림없다. 學部에서 직접 편찬한 「泰西新史撮要」하권(1897년 6월)에 실린 광고에 의하면 學部에서만 1895년 8월부터 1897년 6월까지 24종을 편찬·발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政府 發行의 敎科用 圖書는 출판사들이 다투어 위탁받아 판매를 代行하였다. 당시 출판사들은 인쇄와 書店을 겸하고 있었고, 敎科書는 出版社의 가장 중요한 품목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다.

12) 위의 책, 39-40.

또한 이 시기의 대표적인 것은 歷史와 地理教科書였다. 역사·지리교과서는 學校에서의 教育用 教材로서만이 아니라 國民의 歷史 知識과 自主 의식의 함양에도 큰 영향을 주었는데, 이때 玄采는 대표적인 國史教科書 편찬자로서 幼年必讀(휘문관), 「동국사략」 등을 著述하였다. 學部 發行의 教科書 目錄만 살펴보아도 開化期에 큰 영향을 끼친 「泰西新史」를 비롯하여 「동여지도」·「조선역사」·「朝鮮地誌」·「萬國地誌」·「萬國史略」·「土民必知」 등도 들어 있다.

教科書 출판도 1906년 統監府가 설치되고 日本人의 고문 정치가 시작되면서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다. 教育 行政이 일본인에 의해 좌우됨에 따라 각급 학교관계 法規가 개정되거나 새로 制定되었다. 특히 從來에 없던 學部編纂 보통학교 교과용 도서 發售 규정(1907년), 교과용 도서 檢定 규정(1908년), 학부편찬 교과용 도서 발매 규정(1908년) 등이 차례로 제정되었다. 그리고 親日的인 검정 기준을 통하여 主權 回復과 獨立 思想을 고취시키는 내용의 교과서는 국시에 위반되는 오류인 것처럼 제약을 가하여 출판을 억제하기 시작하였다. 즉 1908년 9월부터 1910년 4월 5일까지 교과서 검정으로 출원한 117종 가운데 55종만이 인가되었다. 특히 국어·역사·지리·한문 교과서의 경우 77종이 신청되었으나 그 28%인 22종만 검정된 데 불과하였다.¹³⁾

더구나 出版法이 공포(1909년 2월 23일)된 이후에는 상당량의 검정을 거친 교과서가 發賣 禁止되었다. 이러한 교과서의 발매·사용 금지 처분은 계속되어 1909년 12월 현재 39종에 이르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교과서의 需要는 계속해서 급격하게 增加되면서 1908년과 1909년 사이의 學部 編纂 교과서의 發行 실적은 <표 1>과 같다. 당시의 印刷 施設이나 用紙 수급의 사정으로 미루어 이 많은 양의 교과서 需要를 어떻게 충당했는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우리 印刷기계의 공급이나 印刷기술이 성장한 것이다.

13) 위의 책, 41-43.

<표 1> 학부에서 편찬한 교과용 도서의 발행 실태(1908~1909년)

교과서 종류	1908년(융희 2년)		1909년(융희 3년)	
	발매책수	급여책수	발매책수	급여책수
수신서	3,931	3,558	21,900	16,368
구어독본	6,748	7,836	38,726	33,946
일어독본	9,284	9,383	37,896	33,840
한문입문	573	967	-	-
한문독본	3,225	4,055	22,835	12,398
이과서	1,186	515	3,921	2,464
도진입문	3,124	3,115	8,427	10,030
산술서	-	-	1,672	1,512
습자첩	-	-	67,559	48,756
총계	20,071	29,429	202,936	159,314

자료 : 강운호, 「개화기 교과용 도서」, 교육출판사, 1973년, 58쪽.

4.5 종교서

基督敎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宗教 서적의 출판은 宣敎 사업의 문이 열리기 전에 海外에서 먼저 시작되어 國內 近代化運動과 근대 출판 방면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

國外에서의 출판은 주로 中國과 日本에서 외국인 宣敎師들과 한국인 信者들의 공동노력을 통해 基督敎의 韓國 전파를 위한 수단으로 「성서」 번역출판이 이루어지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존 로스(John Ross)는 1882년에 「누가복음」과 「요안나복음(요한복음)」을 刊行한 이래 1885년까지 10편의 신약을 한글로 번역·출판하였다. 이렇게 출판된 것을 모두 합쳐서 「예수성교전서」(1887년)라는 이름으로 문광서원에서 活版本으로 출판된다. 일본에서는 당시 제일미국성공회 총무 루미스(Henry Loomis)가 李樹廷에게 번역을 시켜 「懸吐韓漢新約聖書」(1884년)를 刊行하였으나 國內 반포에 적합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유포되지 않았다. 李樹廷은 다시 번역에 착수하여 「신약마가복음서언해」(1884년)를 印刷하였는데, 이를 언더우드(H. G. Underwood)와 아펜셀러(H. G. Appenzeller)가 가지고 入國하였다.

이러한 聖經들은 처음에 木板 印刷로 출판하다가 만주의 Costs신부가 최초로 한글 鉛活字를 만들어 우리말 書籍을 인쇄하였다. 한국인 신부 崔智嫻의 글씨를 본 따 鑄造한 것이다. 최지혁이 쓴 字本으로 한글 鉛活字를 鑄造한 곳은 日本 요코하마였는데, 1880년경 당시 日本에 머물고 있던 프랑스 외방전도회 소속 Félix Clair Ridet 주교의 주도 아래 대 조선 선교문서를 제작할 때 한글활자의 字本을 제공했다고 한다. 이 ‘최지혁체’로 유명한 「韓佛字典」(1880년)을 간행하고 그 활자들이 근대적인 인쇄술의 導入과 함께 國內에 普及되었다.¹⁴⁾

한편 國內에서 聖書가 처음으로 번역·출판된 것은 언더우드와 아펜셀러에 의해 1887년에 간행한 「신약전서 마가복음서 언해」가 시초였다. 1884년 미국인 의료 선교사 알렌(Allen)의 入國을 시작으로 國內에 들어오게 된 각 기독교파의 宣教師들은 로스 譯과 이수정 譯이 誤譯이 많고 文體와 맞춤법도 바르지 못하여 새로운 聖書 翻譯의 필요성이 절실한 형편이었다. 이런 背景으로 聖書의 번역출판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韓國에 있던 新教 宣教師들이 합동으로 성서위원회와 성서번역위원회를 조직한 1887년부터라고 할 수 있다. 1893년 1월에는 서울에서 현지 改新教宣教師會議를 개최하고 聖書 翻譯의 기본 원칙을 정하였다. 이 원칙 중에는 “모든 기록은 漢文을 버리고 한글로 한다.” 하는 내용도 들어 있었다. 이에 따라 성서번역기구를 새로 構成하여 성서와 찬송가, 교리서 등도 출판하게 되었다.

이에 앞서 1890년에는 대한성교서회를 설립하고 언더우드 번역의 「성교찰리」를 비롯하여 1910년까지 160여종의 전도지, 기독교와 관련된 教養 圖書를 출판하였다. 선교사들은 교과서도 번역 출판하여 기독교 계통의 배재학단, 이화학당, 경신학교에서 사용했는데, J. S. Gale의 선몽천자, A. A. Baird의 식물학·동물학·「물리학」·「지리학」, Eva Feild의 「산술신편」, Hulbert의 「사민필지」 등이 그것이다.

선교사들은 이러한 출판 활동을 效果的으로 展開하기 위하여 직접 인쇄소를 設立, 근대 출판 艱상기의 인쇄기기 보급 및 출판 技術의 發展에 중요한 일익을

14) 위의 책, 45-47.

담당한다. 培裁學堂의 설립자인 아펜셀러는 교과서와 선교용 출판을 위해 1886년에 배재학당 지하실에 인쇄 시설을 설치하고 출판사를 차렸다. 그 이름을 美美活版所 또는 한미화활판소라고도 불렀다. 1889년 7월에는 中國에서 선교하던 F. Ohlinger 목사를 불러들여 미미활판소 運營 책임을 맡겼는데, 이때쯤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32면 活版 新式 印刷機가 석유발동기로 운전되었다. 또 미국제 自動切斷全紙機가 設置되었으며, 인쇄에 필요한 종이와 잉크 등도 얼마 동안은 美國에서 들여다 사용하였다. 「독립신문」을 비롯한 「조선 크리스도인 회보」, 「협성회 회보」 및 「日一일신문」 등 초기의 신문들도 여기서 인쇄하였다.

한편 천주교에서는 1882년부터 일본 나가사키(長崎)에 있던 聖書 活版所를 1888년에 서울로 옮겨, 「성찰기략」 등 開化 初期의 敎理書를 인쇄하기 시작하였다. 천주교가 근대 출판에 끼친 영향은 新敎보다 훨씬 앞선다. 주로 中國과 日本에서 活動중인 천주교 신부들이 韓國 宣敎를 위하여 한국어 출판을 시작한 것이다. 비록 그 활자를 일본에서 가져오기는 했어도 大·中·小 세 가지 한글활자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보다 多樣한 체제의 출판이 가능했다.¹⁵⁾

이상으로 近代書籍들의 印刷를 각 분야 별로 살펴본 바, 위와 같은 新文化를 접하면서 出刊된 書籍들로 인한 影響 및 特性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근대 서적들은 大衆을 상대로 출판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즉 讀書의 大衆化를 이루게 되어 독서인구의 확산에 기여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인 新敎育 擴大와 그로 인한 敎育 人구의 증가로 말미암아 19세기 말엽부터 實施된 近代의 敎育과 일반인들에게 敎育의 기회가 擴大되면서 독서의 대중화 현상을 창출해 냈다. 또한 이렇게 되기까지는 물론 言論 活動의 영향도 컸다. 「독립신문」을 비롯한 많은 新聞들은 自主 獨立의 精神과 開化 思想의 고취를 위해 書籍의 重要性과 書籍 出版의 重要性을 強調하면서 讀書를 적극 권장한 결과 이와 같은 讀書 大衆化의 促進劑 役割을 하게 되었다.

둘째, 西洋 印刷術을 導入하여 印刷 活動을 시작한 開化 初期 서적 출판의 목적은 신문화의 수용으로 인한 文明의 開化와 國民 啓蒙에 뜻을 두었음을 볼

15) 위의 책, 46-47.

수 있다. 初期에는 利益을 추구하려는 상업주의에 앞서 獨立精神을 고취하고 愛國心을 배양하여 國權回復과 조속한 近代化의 달성에 이바지하겠다는 志士的意志가 팽배해 있었음을 볼 수 있다. 당시 일반 啓蒙書의 출판을 통한 知識의 大衆化는 진 국민적인 自主 精神의 自覺과 애국계몽 운동을 展開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셋째, 近代 韓國의 인쇄는 政府 主導에 의해 이루어 졌다. 民間에서 직접 서양 인쇄술을 導入할 수 있는 여건이 成熟되지 않은 상황에서 政府가 솔선함으로써 近代 出版의 길이 열린 것은 開化運動의 중요한 결실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당시 젊은 官僚들은 西洋 見聞을 넓히는 계기가 마련되면서 政府안에 전담기구를 두어 서양식 인쇄기를 導入하고 기술자들을 데려다 近代式 인쇄기술을 普及하는데 앞장섰다. 이와 같이 開化와 국민계몽의 가장 效果의인 방법으로 인쇄술 도입에 앞장섬으로써 民間出版이 활발하게 展開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이다.

넷째, 近代 출판의 開幕은 단순한 서구화가 아닌 우리 출판 기술의 근대화를 촉진시켰다. 당시의 근대화는 곧 서양화를 지향하던 時代的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出版技術 과정은 단순한 서양화가 아니라 우리의 內在的인 역량에 바탕을 둔 主體的인 近代化 과정을 거쳤다는 점이다. 즉, 단순히 西洋의 新式 인쇄술을 받아들여려고만 하지 않고, 우리의 傳統的인 印刷 樣式과 技術을 살려가면서 主體的으로 서양의 合理的인 기술을 새롭게 수용하여 發展시키고자 노력한 점을 높이 보아야할 것이다.

西洋의 인쇄 제본 기술이 한국 近代書籍 인쇄 발전에 중요한 觸媒 역할을 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初期 우리가 만든 印刷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近代 출판의 搖籃期에 서적인쇄에 量的·質的 향상을 이룩한 근대 서적인쇄의 특징은 단순한 서양화가 아니라 고유한 출판의 전통과 기술의 근대화를 이루어 낸 점이라 할 수 있다.

5. 결 론

이상과 같이 韓國의 近代 初 社會變化 속에서 신문화의 유입과 함께 新式종이와 서양식 인쇄의 導入으로 각 分野에서 書籍의 출판양상을 살폈다. 그 결과 社會는 外勢의 파도와 압력으로 개화라는 명칭을 가지고 변화를 시도하면서 西歐의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특히 당시 先覺者들은 愛國 啓蒙의 일환으로 당시의 각 분야에서 신문화를 수용하면서 우리의 傳統書 및 신문화 서적들을 刊行하기에 이르렀다. 이 時期 啓蒙과 國學을 위하여 또는 신소설 분야, 그리고 教科書 내지 宗教書 분야 등 각 分野別로 書籍의 刊行을 살폈다. 이들 書籍刊行의 性格 및 그 영향을 보면 첫째 近代 印刷의 시작으로 비로서 大衆을 상대로 한 출판이 시작되었음을 볼 수 있었고, 이로써 讀書의 大衆化를 이루고 독서인구의 擴散을 가져왔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문명의 開化와 국민 계몽에 뜻을 둔 1900년대는 愛國運動으로 發展하게 되었다. 셋째 近代 서적인쇄는 政府의 주도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었다. 民間에서 직접 印刷術을 도입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政府가 근대출판의 길을 열었던 것이다. 넷째 近代 출판은 單純한 서구화가 아니라 우리 서적인쇄기술의 近代化였다. 즉, 단순히 西洋의 新式印刷를 받아들여 고만 하지 않고 우리의 傳統의인 印刷樣式과 技術을 살려가면서 西洋의 合理的인 技術을 새롭게 수용하여 발전시켰다는 점이다. 이로써, 近代 初期 韓國 書籍 印刷의 특징 및 영향을 밝히면서 具體的인 서적인쇄의 內容과 좀 더 깊이 있는 韓國의 近代 書誌史 研究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만길. 고쳐 쓴 한국근대사 . 서울 : 탐구당, 2006.
- 강명관. “근대 계몽기 출판운동과 그 역사적 의의.” 민족문화사연구 14.1(1995): 42-75.
- 姜在彦. 韓國의 開化思想. 서울 : 比奉出版社, 1980.
- 고덕환. “개화세력사회의 출판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1984.
- 金敬泰·申滢植·李培鎔. 韓國文化史 .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2.
- 김종욱. “조선후기 천주교회 출판사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2006.
- 김태준. “근대 계몽기의 교과서와 어문교육.” 東岳語文論集 42(2004). 5-27.
- 백운관·부길만. 한국출판문화변천사 . 서울 : 타래, 1992.
- 서지학개론 편찬위원회. 서지학개론. 과주 : 한울아카데미, 2004.
- 신용하. 韓國近代史와 社會變動. 서울 : 文學과知性社, 1980.
- 安春根. 韓國出版文化史大要 . 서울 : 청림출판, 1987.
- 劉相護. “愛國 啓蒙期の 出版 文化運動.”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1986.
- 李光隣. 韓國開化史研究 . 서울 : 一朝閣, 1963.
- 李裕集. 韓國近代印刷史話. 서울 : 인쇄문화사보, 1974.
- 李鍾國. “韓國의 近代教科用 圖書 成立過程에 대한 研究.”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1987.
- 이중한 외. 우리 출판 100년 . 서울 : 현암사, 2001.
- 印協 40年史 編纂委員. 「印協四十年史」. 서울 : 大韓印刷文化協會, 1988.
- 趙誠出. 韓國印刷出版百年. 서울 : 寶晉齋, 1997.
- 채 백. 출판학. 서울 : 한나래, 1999.

〈附錄〉 1883~1910의 서적출판목록

分類	圖書名	著者	出版社	定價	根據資料
總類 000	古歡堂集		廣印社		1886
	萬國事物記原歷史	張志淵		60錢	皇城, 1909. 12.12, p.4.
	少年		新文館	14錢	皇城, 1908. 11.11, p.3.
哲學 100	高等小學讀本		徵文義塾印刷部	50錢	皇城, 1907. 3.5, p.4.
	古小學大全具解內篇			50錢	皇城, 1910. 5.31, p.4.
	國民小學讀本			20錢	1896. 6月 발행된 『泰西新史攬要』(漢文) 二冊에 附錄된 學部 編輯局의 發行書
	論語集註 全一冊			1圓	1910. 8.21 安泰瑩 編著 『韓日備門尺牘』(全)의 附錄된 東洋書院 特別大發賣 書籍目錄
	大家論集			30錢	皇城, 1908. 11.3, p.4.
	大學集註 全一冊			15錢	1910. 8.21 安泰瑩 編著 『韓日備門尺牘』(全)의 附錄된 東洋書院 特別大發賣 書籍目錄
	孟子集註 全一冊			1圓	1910. 8.21 安泰瑩 編著 『韓日備門尺牘』(全)의 附錄된 東洋書院 特別大發賣 書籍目錄
	牧民心書		廣文社		1901.
	民族競爭論		古今書海館	20錢	皇城, 1908. 5.7, p.3.
	小學		文明書館	1圓	皇城, 1909. 10.28,p.4.
	小學讀本			10錢	1896. 6月 발행된 『泰西新史攬要』(漢文) 二冊에 附錄된 學部 編輯局의 發行書
	小學漢文讀本 全一冊			60錢	皇城, 1908. 4.29, p.3. 1908년에 발행된 기일著 『누터지교과략』에 附錄된 光學書舖 最新刊 書籍 廣告
	新纂初等小學			1圓 5錢	皇城, 1908. 10.28,p.4.
	尋常小學 卷三			16錢	1896년 6월 『泰西新史攬要』(漢文) 二冊에 附錄
	尋常小學 卷二			16錢	1896년 6월 『泰西新史攬要』(漢文) 二冊에 附錄
尋常小學 卷一			14錢	1896년 6월 『泰西新史攬要』(漢文) 二冊에 附錄	
御定五經百選			55錢	皇城, 1908. 9.24,p.4.	
女子修身教科書	周時經	博文書館	20錢	大每, 1908. 8.31,p.4.	
中國魂	張志淵 역	石至書館	50錢	皇城, 1908. 6.7, p.4.	
中庸集註			25錢	1910. 8.21 安泰瑩 編著 『韓日備門尺牘』(全)의 附錄된 東洋書院 特別大發賣 書籍目錄	
初等小學	國民教育會		1圓 50錢	皇城, 1907. 3.5, p.4.	
初等小學修身書 全一冊			25錢	1908년에 발행된 기일著 『누터지교과략』에 附錄된 光學書舖 最新刊 書籍 廣告	
初等倫理教科書 全一冊			20錢	1908년에 발행된 기일著 『누터지교과략』에 附錄된 光學書舖 最新刊 書籍 廣告	
忠孝經集註合璧		廣印社		1884	
宗教 200	누터지교과략 全一冊	기일		45錢	1910. 8.21 安泰瑩 編著 『韓日備門尺牘』(全)의 附錄된 東洋書院 特別大發賣 書籍目錄
	路得改教記略 全一冊	奇一		45錢	1908년에 발행된 기일著 『누터지교과략』에 附錄된 光學書舖 最新刊 書籍 廣告
	숨우엘릴왕기드 지			10錢	1910. 8.21 安泰瑩 編著 『韓日備門尺牘』(全)의 附錄된

	합편 全一冊				東洋書院 特別大發賣 書籍目錄
	성찰괴략		성서활판소		1888
	성경의열쇼 全一冊			10錢	1910. 8.21 安泰瑩 編著 『韓日備門尺牘』(全)의 附錄된 東洋書院 特別大發賣 書籍目錄
	성교찰니	인더우드 역			1890
	신약마가복음언해	李樹廷 역			1884
	안인거 全一冊			20錢	1910. 8.21 安泰瑩 編著 『韓日備門尺牘』(全)의 附錄된 東洋書院 特別大發賣 書籍目錄
	예수성교전서		문광서원		1887
	은밀기도 全一冊			7錢	1910. 8.21 安泰瑩 編著 『韓日備門尺牘』(全)의 附錄된 東洋書院 特別大發賣 書籍目錄
社會科學 300	簡明教育學		右文館		皇城, 1908. 8.1, p.4.
	簡易商業簿記學			45錢	大每, 1908. 4.2, p.4.
	經濟原論			30錢	大每, 1908. 2.13, p.4.
	經濟學教科書		廣文社	40錢	皇城, 1907. 5.7, p.4.
	公法會通 三冊			1圓	1896. 6月 발행된 『泰西新史攬要』(漢文) 二冊에 附錄된 學部 編輯局의 發行書
	交際新禮			18	大每, 1906. 2.28, p.3. 1907. 5.5. 발행된 玄采 著 『幼年必讀』 附錄된 徵文官 廣告
	國家理想學			25錢	皇城, 1908. 8.1, p.4.
	國家學			50錢	皇城, 1906. 6.23, p.4.
	國家學綱領 全一冊			15錢	1908년에 발행된 괴일著 『누터기교괴략』에 附錄된 光學書舖 最新刊 書籍 廣告
	國文泰西物情			50錢	1907. 5.5. 발행된 玄采 著 『幼年必讀』 附錄된 徵文官 廣告
	國民自由進步論		古今書海館	2錢	皇城, 1908. 5.7, p.4
	國民必携 (全)			40錢	1910 再版發行 1909년 學部檢定畢 『初等本國歷史』에 附錄된 廣德書館 出版圖書目錄
	國際公法志			40錢	大每, 1909. 2.13, p.3.
	男女平權論			15錢	皇城, 1907. 1.16, p.3.
	勞動夜學	俞吉潛		35錢	
	東國歲時記		新文館		
	民形訴訟規則			10錢	皇城, 1908. 9.24, p.4.
	民形訴訟書式			35錢	皇城, 1910. 1.12, p.4.
	法學通論	朱定均	博文社	1圓 1圓 30錢 1圓	大每, 1905. 11.23, p.3. 皇城, 19.08. 5.7, p.4. 1910. 8.21 安泰瑩 編著 『韓日備門尺牘』(全)의 附錄된 東洋書院 特別大發賣 書籍目錄
	法學通論(訂增)	俞吉潛		1圓	皇城, 1907. 8.1, p.4.
	普通教育學	金祥演		30錢	皇城, 1908. 9.24, p.4.
	婦幼獨習<上·下>			45錢	皇城, 1908. 8.1, p.4.
	四禮須知			32錢 50錢	1896년 6월 『泰西新史攬要』(漢文) 二冊에 附錄된 1907. 5.5. 발행된 玄采 著 『幼年必讀』 附錄된 徵文官 廣告
	世界文明産育新法			25錢	皇城, 1908. 4.29, p.4.
	新舊刑事法規大全			2圓 60錢	皇城, 1908. 5.1, p.4.

韓國의 近代 西洋印刷術 流入의 影響에 관한 研究

	新法令			皇城, 1908. 1.16, p.3.
	新法律		匯東書館	75錢 大每, 1910. 7.13, p.3.
	新式裁判法 (全)			35錢 1910 再版發行 1909년 學部檢定畢 『初等本國歷史』에 부록된 廣德書館 出版圖書目錄
	新編小學教授法			38錢 皇城, 1908. 11.11, p.4.
	十九世紀歐洲文明進 化論			30錢 皇城, 1908. 4.28, p.4.
	女子讀本 全二冊	張志淵		60錢 皇城, 1909. 1.27, p.4. 1908년에 발행된 기일著 『누터기교과략』에 附錄된 光 學書舖 最新刊 書籍 廣告
	陸軍法律			30錢 大每, 1909. 2.13, p.3.
	林野法令			25錢 皇城, 1908. 5.7, p.4.
	接木新法典			30錢 皇城, 1908. 5.7, p.4.
	政治原論			60錢 大每, 1909. 2.13, p.3.
	進明彙論	李鐘泰		35錢 大每, 1905. 12.12, p.3.
	註釋現行新法令 全一 冊			25錢 1908년에 발행된 기일著 『누터기교과략』에 附錄된 光 學書舖 最新刊 書籍 廣告
	增修無冤錄大全			75錢 皇城, 1907. 7.15, p.4.
	增修無冤錄大全(國 漢文) 全一冊			75錢 1908년에 발행된 기일著 『누터기교과략』에 附錄된 光 學書舖 最新刊 書籍 廣告
	地方自治制論			30錢 皇城, 1909. 1.27, p.4.
	地方行政論		中央書館	皇城, 1908. 9.24, p.4.
	初等修身 <全>	朴晶東	東文社	25錢 大每, 1909. 8.31, p.4.
	最新經濟教科書	俞承兼		40錢 皇城, 1910. 6.3, p.3.
	最新林野法令			25錢 大每 1908. 6.19, p.3.
	致富新說			13錢 皇城, 1908. 4.28, p.4.
	擇里志		新文館	
	土地家屋證明規則			2錢 皇城, 1909. 1.16, p.3.
	漢文增修無冤錄			40錢 1907. 5.5. 발행된 玄采 著 『幼年必讀』 附錄된 徵文官 廣告
	漢文欽欽新書			1圓0錢 1907. 5.5. 발행된 玄采 著 『幼年必讀』 附錄된 徵文官 廣告
	學部認可 大衆法帖 一帙 三冊			2圓 1910 再版發行 1909년 學部檢定畢 『初等本國歷史』에 부록된 廣德書館 出版圖書目錄
	憲法要義			25錢 皇城, 1908. 8.1, p.4.
	刑法大全			60錢 大每 1906. 6.13, p.4. 1907. 5.5. 발행된 玄采 著 『幼年必 讀』 附錄된 徵文官 廣告
	刑法大全<改正>			40錢 皇城, 1908. 12.15, p.4.
	會社法	金祥演		50錢 皇城, 1908. 5.7, p.4.
	欽欽新書			
語學 400	국문가령간독		匯東書館	30錢 大每 1910. 7.27, p.3.
	국문간독			18錢 皇城, 1908. 9.5, p.4.
	국문보감			35錢 皇城, 1910. 4.5, p.4.
	국문정리	李鳳雲		
	국어문법	周時經		
	國語文典音學	周時經	박문서전	
	말의 소리	周時經		
	國漢文新玉篇			1圓 10錢 皇城, 1908. 12.15, p.4.
	唐玉篇			35錢 1910 再版發行 1909년 學部檢定畢 『初等本國歷史』에 부록된 廣德書館 出版圖書目錄

大韓文典	崔光玉	勉學書會	25錢	皇城, 1908. 10.22, p.4.
獨習日語正則	鄭雲復		1圓	皇城, 1907. 11.27, p.3.
獨習日語正則(洋裝半洋裝) 全二冊			1圓5錢	1908년에 발행된 기일著 『누터기교과략』에 附錄된 光學書舖 最新刊 書籍 廣告
獨習韓日會話			25錢	皇城, 1909. 8.31, p.4.
東言考略	鄭喬	古今書海館	20錢	皇城, 1908. 6.7, p.4.
普通教科漢文讀本				皇城, 1908. 5.28, p.4.
普通日本語典	姜在翊		50錢	大,每 1906. 12.12, p.4.
선몽천자	게일			
新字典	柳權·李寅承編	新文館		
新訂國文	池錫永			
雅言覺非		新文館		
言 文	池錫永		40錢	大,每 1909. 7.21, p.4.
幼學字娶 全一冊	尹致昊	三十錢	30錢	1907. 5.5. 발행된 玄采 著 『幼年必讀』 附錄된 徵文官 廣告
耳談續纂			10錢	1908년에 발행된 기일著 『누터기교과략』에 附錄된 光學書舖 最新刊 書籍 廣告
日本文法釋義		大同廣智社印刷部	70錢	大,每 1909. 3.3, p.4.
日本語學音語編		新文館	1圓 40錢	大,每 1910. 1.29, p.3.
日語大成		廣學書舖	1圓 85錢	大,每 1910. 7.13, p.4.
日語大海	朴重華		1圓 25錢 1圓	皇城, 1909. 11.24, p.4. 1910 再版發行 1909년 學部檢定畢 『初等本國歷史』에 附錄된 廣德書館 出版圖書目錄
日語文典			50錢	大,每 1909. 7.21, p.4.
日語自通			20錢	大,每 1909. 3.3, p.4.
日語正則	鄭雲復		1圓	皇城, 1907. 12.22, p.4.
日韓語捷徑			30錢	皇城, 1909. 12.12, p.4.
日韓언문자통錢		廣德書館	50錢	皇城, 1910. 1.12, p.4.
日韓會話辭典			1圓 30錢	皇城, 1909. 9.8, p.4.
字典釋要	池錫永	廣德書館	80錢	大,每 1908. 7.13, p.4. 1910. 8.21 安泰瑩 編著 『韓日備門尺牘』(全)의 附錄된 東洋書院 特別大發賣 書籍目錄
全韻玉篇 上下 二冊(石版).		上海 印刷		匯東書館의 發行書籍중 1910년까지의 圖書
千字文			20錢	皇城, 1908. 11.11, p.3.
初等自解日語文典 全一冊			50錢	1910. 8.21 安泰瑩 編著 『韓日備門尺牘』(全)의 附錄된 東洋書院 特別大發賣 書籍目錄
編蒙象論			8錢	1896년 6월 『泰西新史攬要』(漢文) 二冊에 附錄
한영문법		한미화활판소		독립신문 1896. 4. 7. 광고
한영자년		한미화활판소		독립신문. 1896. 4. 7. 광고
學部檢定 高等日文讀本全			60錢	1910 再版發行 1909년 學部檢定畢 『初等本國歷史』에 附錄된 廣德書館 出版圖書目錄
學部認可 日語大海			1圓	1910. 8.21 安泰瑩 編著 『韓日備門尺牘』(全)의 附錄된 東洋書院 特別大發賣 書籍目錄
學部檢定 漢文新讀本全四冊			50錢	1910 再版發行 1909년 學部檢定畢 『初等本國歷史』에 附錄된 廣德書館 出版圖書目錄
學部認可 精選日韓言			65錢	1910 再版發行 1909년 學部檢定畢 『初等本國歷史』에

韓國의 近代 西洋印刷術 流入의 影響에 관한 研究

	文自通				부록된 廣德書館 出版圖書目錄
純粹科學 500	家庭養鷄新論 (全)		40錢	1910 再版發行 1909년 學部檢定畢 『初等本國歷史』에 부록된 廣德書館 出版圖書目錄	
	簡明物理教科書		30錢	皇城, 1910. 1.12, p.4.	
	簡易四則(算術)		40錢	1896년 6월 『泰西新史攬要』(漢文) 二冊에 附錄	
	改正代數學教科書 全二冊		1圓	1910. 8.21 安泰瑩 編著 『韓日備門尺牘』(全)의 附錄된 東洋書院 特別大發賣 書籍目錄	
	改正增補物理學講義 全一冊		1圓20錢	1910. 8.21 安泰瑩 編著 『韓日備門尺牘』(全)의 附錄된 東洋書院 特別大發賣 書籍目錄	
	改正增補化學講義 全一冊		1圓80錢	1910. 8.21 安泰瑩 編著 『韓日備門尺牘』(全)의 附錄된 東洋書院 特別大發賣 書籍目錄	
	改正初等代數學教科書 (藤澤) 全二冊		1圓30錢	1910. 8.21 安泰瑩 編著 『韓日備門尺牘』(全)의 附錄된 東洋書院 特別大發賣 書籍目錄	
	高等小學算術書		20錢	大每, 1908. 8.31, p.4.	
	近世小化學			皇城, 1908. 5.28, p.4.	
	近世礦物學教科書 全一冊		50錢	1910. 8.21 安泰瑩 編著 『韓日備門尺牘』(全)의 附錄된 東洋書院 特別大發賣 書籍目錄	
	近世動物學教科書 全一冊		65錢	1910. 8.21 安泰瑩 編著 『韓日備門尺牘』(全)의 附錄된 東洋書院 特別大發賣 書籍目錄	
	近世物理學講義 全一冊		1圓50錢	1910. 8.21 安泰瑩 編著 『韓日備門尺牘』(全)의 附錄된 東洋書院 特別大發賣 書籍目錄	
	近世物理學教科書 全一冊		80錢	1910. 8.21 安泰瑩 編著 『韓日備門尺牘』(全)의 附錄된 東洋書院 特別大發賣 書籍目錄	
	近世生物學教科書 全一冊		50錢	1910. 8.21 安泰瑩 編著 『韓日備門尺牘』(全)의 附錄된 東洋書院 特別大發賣 書籍目錄	
	近世植物學教科書 全一冊		50錢	1910. 8.21 安泰瑩 編著 『韓日備門尺牘』(全)의 附錄된 東洋書院 特別大發賣 書籍目錄	
	近世化學教科書 全一冊		80錢	1910. 8.21 安泰瑩 編著 『韓日備門尺牘』(全)의 附錄된 東洋書院 特別大發賣 書籍目錄	
	近易算術(上·下)		80錢	1896년 6월 『泰西新史攬要』(漢文) 二冊에 附錄	
	幾何學教科書平面之部 全一冊		65錢	1910. 8.21 安泰瑩 編著 『韓日備門尺牘』(全)의 附錄된 東洋書院 特別大發賣 書籍目錄	
	幾何學小學教科書平面 全一冊		80錢	1910. 8.21 安泰瑩 編著 『韓日備門尺牘』(全)의 附錄된 東洋書院 特別大發賣 書籍目錄	
	內部認可 <樵牧必知> 全		35錢	1910 再版發行 1909년 學部檢定畢 『初等本國歷史』에 부록된 廣德書館 出版圖書目錄	
	代數學教科書	金峻鳳	1圓 30錢	皇城, 1908. 9.4, p.3.	
	代數學問題通解 全一冊		1圓 30錢	1910. 8.21 安泰瑩 編著 『韓日備門尺牘』(全)의 附錄된 東洋書院 特別大發賣 書籍目錄	
	동물학				
	動物學問答	李觀熙	23錢	皇城, 1909. 9.8, p.4.	
	無機化學 全二冊		3圓40錢	1910. 8.21 安泰瑩 編著 『韓日備門尺牘』(全)의 附錄된 東洋書院 特別大發賣 書籍目錄	
	問題解法幾何學辭典 全一冊		1圓	1910. 8.21 安泰瑩 編著 『韓日備門尺牘』(全)의 附錄된 東洋書院 特別大發賣 書籍目錄	
	問題解法代數學辭典 全一冊		2圓50錢	1910. 8.21 安泰瑩 編著 『韓日備門尺牘』(全)의 附錄된 東洋書院 特別大發賣 書籍目錄	
	問題解法三角法辭典 全一冊		2圓50錢	1910. 8.21 安泰瑩 編著 『韓日備門尺牘』(全)의 附錄된 東洋書院 特別大發賣 書籍目錄	
	問題解法續幾何學辭		1圓30錢	1910. 8.21 安泰瑩 編著 『韓日備門尺牘』(全)의 附錄된	

典 全一冊				東洋書院 特別大發賣 書籍目錄
問題解法數學辭典 全一冊			1圓50錢	1910. 8.21 安泰瑩 編著 『韓日備門尺牘』(全)의 附錄된 東洋書院 特別大發賣 書籍目錄
물리학				
物理學初步			50錢	大每, 1909. 8.31, p.4.
普通教科算術書			20錢	大每, 1909. 8.31, p.4.
普通教育化學講義實驗書 全一冊			2圓50錢	1910. 8.21 安泰瑩 編著 『韓日備門尺牘』(全)의 附錄된 東洋書院 特別大發賣 書籍目錄
算術教科書	李相益		80錢	皇城, 1908. 7.12, p.4.
算術新書(上·下)			80錢	1907. 5.5. 발행된 玄采 著 『幼年必讀』 附錄된 徵文官 廣告
산술신편	Eva. Feild			
算術要解	李聖和		18錢	皇城, 1909. 12.12, p.4. 1910 再版發行 1909년 學部檢定畢 『初等本國歷史』에 부록된 廣德書館 出版圖書目錄
算術要解 全			18錢	
算學通論	李命七		1圓	皇城, 1908. 6.7, p.4.
三角法教科書 全一冊			1圓20錢	1910. 8.21 安泰瑩 編著 『韓日備門尺牘』(全)의 附錄된 東洋書院 特別大發賣 書籍目錄
生理學教科書			75錢	皇城, 1909. 2.7, p.4.
物理學詳解講義 全一冊			1圓50錢	1910. 8.21 安泰瑩 編著 『韓日備門尺牘』(全)의 附錄된 東洋書院 特別大發賣 書籍目錄
數學講義錄幾何 全一冊			1圓50錢	1910. 8.21 安泰瑩 編著 『韓日備門尺牘』(全)의 附錄된 東洋書院 特別大發賣 書籍目錄
數學講義錄代數 全一冊			1圓50錢	1910. 8.21 安泰瑩 編著 『韓日備門尺牘』(全)의 附錄된 東洋書院 特別大發賣 書籍目錄
數學講義錄算數 全一冊			1圓50錢	1910. 8.21 安泰瑩 編著 『韓日備門尺牘』(全)의 附錄된 東洋書院 特別大發賣 書籍目錄
식물학	A. A. Baird			
新幾何學教科書(長澤) 全一冊			60錢	1910. 8.21 安泰瑩 編著 『韓日備門尺牘』(全)의 附錄된 東洋書院 特別大發賣 書籍目錄
新論動物學			40錢	匯東書館의 發行書籍중 1910년까지의 圖書
新訂算術			60錢	皇城, 1906. 11.7, p.4.
新訂算術全三冊			60錢	1908년에 발행된 弼堯著 『누터기교과략』에 附錄된 光學書舖 最新刊 書籍 廣告
新撰幾何學問題通解 全一冊			1圓	1910. 8.21 安泰瑩 編著 『韓日備門尺牘』(全)의 附錄된 東洋書院 特別大發賣 書籍目錄
新撰物理學教科書 全一冊			1圓	1910. 8.21 安泰瑩 編著 『韓日備門尺牘』(全)의 附錄된 東洋書院 特別大發賣 書籍目錄
新撰物理學實驗法 全一冊			2圓	1910. 8.21 安泰瑩 編著 『韓日備門尺牘』(全)의 附錄된 東洋書院 特別大發賣 書籍目錄
新撰小物理學	國民教育會		50錢	皇城, 1906. 10.4, p.4.
新撰小博物學	國民教育會	國民教育會	50錢	皇城, 1907. 8.1, p.4.
新撰理化學	朴晶東	廣學書舖	30錢	皇城, 1910. 4.5, p.4.
新撰理化學 全一冊			30錢	1908년에 발행된 弼堯著 『누터기교과략』에 附錄된 光學書舖 最新刊 書籍 廣告
新撰化學實驗法 全一冊			1圓50錢	1910. 8.21 安泰瑩 編著 『韓日備門尺牘』(全)의 附錄된 東洋書院 特別大發賣 書籍目錄

韓國의 近代 西洋印刷術 流入의 影響에 관한 研究

	新編家庭學				
	新編動物學		匯東書館	40錢	皇城, 1908. 9.5, p.4.
	養鯉新法	張在撤		15錢	匯東書館의 發行書籍중 1910년까지의 圖書
	理科生(全)			35錢	1910 再版發行 1909년 學部檢定單 『初等本國歷史』에 附錄된 廣德書館 出版圖書目錄
	理化學教科書			40錢	皇城, 1910. 5.31, p.4.
	中學校用植物教科書 全一冊			55錢	1910. 8.21 安泰瑩 編著 『韓日備門尺牘』(全)의 附錄된 東洋書院 特別大發賣 書籍目錄
	撰定生理衛生學教本 全一冊			60錢	1910. 8.21 安泰瑩 編著 『韓日備門尺牘』(全)의 附錄된 東洋書院 特別大發賣 書籍目錄
	初等物理學教科書			60錢	皇城, 1908. 11.11, p.3.
	初等算術教科書			90錢	大每, 1908. 7.3, p.3.
	初等生理學大要				
	最新田野山林實地測量法			60錢	皇城, 1909. 2.7, p.4.
	最新物理學講義 全一冊			1圓70錢	1910. 8.21 安泰瑩 編著 『韓日備門尺牘』(全)의 附錄된 東洋書院 特別大發賣 書籍目錄
	最新參考化學精解 全一冊			1圓30錢	1910. 8.21 安泰瑩 編著 『韓日備門尺牘』(全)의 附錄된 東洋書院 特別大發賣 書籍目錄
	チャーレスミス氏 初等代數學 全一冊			90錢	1910. 8.21 安泰瑩 編著 『韓日備門尺牘』(全)의 附錄된 東洋書院 特別大發賣 書籍目錄
	チャーレスミス氏 代數學講義			2圓70錢	1910. 8.21 安泰瑩 編著 『韓日備門尺牘』(全)의 附錄된 東洋書院 特別大發賣 書籍目錄
	チャーレスミス氏 初等代數式 全一冊			90錢	1910. 8.21 安泰瑩 編著 『韓日備門尺牘』(全)의 附錄된 東洋書院 特別大發賣 書籍目錄
	參考實驗物理學 全一冊			1圓60錢	1910. 8.21 安泰瑩 編著 『韓日備門尺牘』(全)의 附錄된 東洋書院 特別大發賣 書籍目錄
	平面幾何學			70錢	皇城, 1909. 11.24, p.4.
	學部認可 大雲觀帖 全			70錢	1910 再版發行, 1909 學部檢定單 安鍾和 『初等本國史』에 附錄된 廣德書館 出版圖書目錄
	學部檢定 同解說			20錢	1910 再版發行 1909년 學部檢定單 『初等本國歷史』에 附錄된 廣德書館 出版圖書目錄
	學部檢定 算術指南 上			55錢	1910 再版發行 1909년 學部檢定單 『初等本國歷史』에 附錄된 廣德書館 出版圖書目錄
	解法適用算術辭典 全一冊			2圓50錢	1910. 8.21 安泰瑩 編著 『韓日備門尺牘』(全)의 附錄된 東洋書院 特別大發賣 書籍目錄
	化學教科書			65錢	皇城, 1908. 12.6, p.4.
技術科學 600	家庭雜誌			10錢	大每, 1908. 1.30, p. 1908년에 발행된 기일著 『누터기교과략』에 附錄된 光學書舖 最新刊 書籍 廣告
	果樹栽培書	金載億		80錢	皇城, 1910. 4.5, p.4.
	農方新編			35錢	皇城, 1909. 1.27, p.4.
	農業大要	李覺鐘		30錢	皇城, 1910. 4.5, p.4.
	農政新編	安宗洙	廣印社		1885
	農政撮要		廣印社		1886
	圖根測量術			35錢	皇城, 1909. 1.16, p.3.
	富國全書養鷄新論 全二冊			35錢	1908년에 발행된 기일著 『누터기교과략』에 附錄된 光學書舖 最新刊 書籍 廣告
	新撰家庭學 <國文>	朴晶東		20錢	大每, 1908. 2.13, p.3.
	新撰國文家庭讀本			30錢	匯東書館의 發行書籍중 1910년까지의 圖書

	新撰應用肥料學 全一冊			50錢	1910. 8.21 安泰瑩 編著 『韓日備門尺牘』(全)의 附錄된 東洋書院 特別大發賣 書籍目錄
	新撰測量學 全 90錢				1910 再版發行 1909년 學部檢定畢 『初等本國歷史』에 附錄된 廣德書館 出版圖書目錄
	實用家計簿記			22錢	皇城, 1908. 5.28, p.4.
	實用果樹栽培全書 (全)			80錢	1910 再版發行 1909년 學部檢定畢 『初等本國歷史』에 附錄된 廣德書館 出版圖書目錄
	養鷄新論			35錢	皇城, 1908. 4.29, p.3.
	養鷄新說				
	銀行簿記學			65錢	大每, 1909. 2.13, p.3.
	인공양잠감				
	裁桑全書			45錢	1907. 5.5. 발행된 玄采 著 『幼年必讀』 附錄된 徵文官 廣告
	菜蔬栽培全書			45錢	皇城, 1909. 11.14, p.4.
	初等衛生學教科書 全一冊			15錢	1908년에 발행된 弑일著 『누터지교과략』에 附錄된 光學書舖 最新刊 書籍 廣告
	土地測量法	姜大成 朱榮建 李海東	大韓書林	40錢	皇城, 1908. 9.4, p.3.
	土地測量術			60錢	大每, 1908. 10.22, p.4.
	學部檢定 初等生理衛生學大全, 全,			25錢	1910 再版發行 1909년 學部檢定畢 『初等本國歷史』에 附錄된 廣德書館 出版圖書目錄
藝術 700	普通學校體操提要			20錢	大每, 1909. 3.3, p.4. 1908년에 발행된 弑일著 『누터지교과략』에 附錄된 光學書舖 最新刊 書籍 廣告
	用器畫法			70錢	皇城, 1908. 5.7, p.4.
文學 800	經國美談 (全)			15錢	1910 再版發行 1909년 學部檢定畢 『初等本國歷史』에 附錄된 廣德書館 出版圖書目錄
	京釜鐵道歌		新文館	10錢	皇城, 1908. 12.15, p.4.
	警世鐘			15錢	皇城, 1908. 11.11, p.3.
	鬼의 聲	李人植		3錢	大每, 1907. 7.10, p.3.
	禽獸會議錄	安國善	황성서적업 조합	15錢	大每, 1908. 4.2, p.4.
	大東風雅 (全)			25錢	1910 再版發行 1909년 學部檢定畢 『初等本國歷史』에 附錄된 廣德書館 出版圖書目錄
	로빈손표류기		의진사		
	夢見諸葛亮(附寫眞 三本)			50錢	1908년에 발행된 弑일著 『누터지교과략』에 附錄된 光學書舖 最新刊 書籍 廣告
	保幼新編			50錢	皇城, 1909. 1.27, p.4.
	瑞士建國志	김병현 역 박은식 역	박문서관	15錢	大每 1907. 10.19, p.4.
	雪中梅	具然學		20錢	1908년 刊 (押收) 匯東書館의 發行書籍중 1910년까지의 圖書
	世界三怪物			12錢	皇城, 1908. 4.1, p.3. 1908년에 발행된 弑일著 『누터지교과략』에 附錄된 光學書舖 最新刊 書籍 廣告
	巔上雪			30錢	1908년에 발행된 弑일著 『누터지교과략』에 附錄된 光學書舖 最新刊 書籍 廣告
	愛國夫人傳 全二冊	張志淵		15錢	1908년에 발행된 弑일著 『누터지교과략』에 附錄된 光學書舖 最新刊 書籍 廣告
	臥遊金剛山 (全)			80錢	1910 再版發行 1909년 學部檢定畢 『初等本國歷史』에 附錄된 廣德書館 出版圖書目錄

韓國의 近代 西洋印刷術 流入의 影響에 관한 研究

	十錢叢書				
	雁의 聲	崔瓊植			
	愛國婦人傳			15錢	皇城, 1907. 11.7, p.4.
	熱河日記		新文館		
	六錢小說				
	자유종	李海朝	光學書舖		
	警世錄 全一冊			15錢	1908년에 발행된 괴일著 『누터지교과략』에 附錄된 光學書舖 最新刊 書籍 廣告
	찬미가 全一冊			2錢5厘	1908년에 발행된 괴일著 『누터지교과략』에 附錄된 光學書舖 最新刊 書籍 廣告
	尺牘完編	朴晶東		1圓	大每, 1909. 12.24, p.4.
	天路歷程				
	鐵世界	李海朝	匯東書館	25錢 35錢	皇城, 1908. 12.15, p.4. 1908년 刊 (押收) 匯東書館의 發行書籍중 1910년까지의 圖書
	初等文學讀本	李源競		30錢	大每 1908. 5.2, p.3.
	추월색	崔瓊植			
	春外春				
	雉岳山	李人植	유일서관	40錢	皇城, 1908. 11.3, p.4.
	漢陽歌			6錢	皇城, 1908. 12.15, p.4.
	恨 月			80錢	1910 再版發行 1909년 學部檢定單 『初等本國歷史』에 不록된 廣德書館 出版圖書目錄
	韓日備門尺牘	安泰瑩			1910. 8.21.
	血淚(國文) 全二冊	李人植	광학서포	20錢	1908년에 발행된 괴일著 『누터지교과략』에 附錄된 光學書舖 最新刊 書籍 廣告
	홍도화				
	懷中新鏡			35錢	皇城, 1909. 1.27, p.4.
	回天山奇談 (全)			40錢	1910 再版發行 1909년 學部檢定單 『初等本國歷史』에 不록된 廣德書館 出版圖書目錄
歷史· 地理 900	葛蘇不傳			15錢	大每, 1908. 5.2, p.3.
	講道要領 全一冊			45錢	1910. 8.21 安泰瑩 編著 『韓日備門尺牘』(全)의 附錄된 東洋書院 特別大發賣 書籍目錄
	改訂外國地理附圖 全一冊			38錢	1910. 8.21 安泰瑩 編著 『韓日備門尺牘』(全)의 附錄된 東洋書院 特別大發賣 書籍目錄
	高等參考西洋史講話 全一冊			2圓80錢	1910. 8.21 安泰瑩 編著 『韓日備門尺牘』(全)의 附錄된 東洋書院 特別大發賣 書籍目錄
	譬喻要旨 全一冊			12錢	1910. 8.21 安泰瑩 編著 『韓日備門尺牘』(全)의 附錄된 東洋書院 特別大發賣 書籍目錄
	國文小地球圖 (着色)			4錢	1896. 6월 발행된 『泰西新史攬要』(漢文) 二冊에 附錄된 學部 編輯局의 發行書
	國民須知 全一冊			8錢	1908년에 발행된 괴일著 『누터지교과략』에 附錄된 光學書舖 最新刊 書籍 廣告
	近世史			45錢	大每, 1905. 12.12, p.3.
	近世博物教科書 全一冊			35錢	1910. 8.21 安泰瑩 編著 『韓日備門尺牘』(全)의 附錄된 東洋書院 特別大發賣 書籍目錄
	羅馬史(附意大利史)			80錢	1907. 5.5. 발행된 玄采 著 『幼年必讀』 附錄된 微文官 廣告
	大東記年			2圓	皇城, 1906. 6.23, p.4.
	大東歷史	柳 喬		3圓	皇城, 1906. 6.23, p.4.

大韓疆域考			2圓	皇城, 1905. 9.6, p.4.
대한디지		한양서관	25錢	皇城, 1908. 9.24, p.4.
대한력스		한양서관	30錢	皇城, 1908. 9.24, p.4.
大韓新地誌			1圓	大每, 1907. 7.10, p.3.
大韓輿圖 一帖			17錢5厘	1910 再版發行 1909년 學部檢定畢 『初等本國歷史』에 수록된 廣德書館 出版圖書目錄
大韓地誌(附地道)一冊			75錢	1907. 5.5. 발행된 玄采 著 『幼年必讀』 附錄된 徵文官 廣告
大韓地誌教科書			25錢	大, 每 1908. 10.22, p.4.
東國兵鑑				
東國史略(四冊合附)二卷			1圓0錢	1907. 5.5. 발행된 玄采 著 『幼年必讀』 附錄된 徵文官 廣告
東國通鑑				
東史節要	安鍾和	博文社	2圓 50錢	皇城, 1905. 4.1, p.3.
東洋歷史講義 全一冊			2圓65錢	1910. 8.21 安泰瑩 編著 『韓日備門尺牘』(全)의 附錄된 東洋書院 特別大發賣 書籍目錄
東洋史教科書	俞鈺兼	隆文館	75錢	皇城, 1908. 9.14, p.4.
東洋四千年史 全一冊			2圓50錢	1910. 8.21 安泰瑩 編著 『韓日備門尺牘』(全)의 附錄된 東洋書院 特別大發賣 書籍目錄
東洋歷史講話 全一冊			2圓	1910. 8.21 安泰瑩 編著 『韓日備門尺牘』(全)의 附錄된 東洋書院 特別大發賣 書籍目錄
東洋歷史大辭典 全一冊			7圓	1910. 8.21 安泰瑩 編著 『韓日備門尺牘』(全)의 附錄된 東洋書院 特別大發賣 書籍目錄
東輿地圖			8錢	1896년 6월 『泰西新史攬要』(漢文) 二冊에 附錄
羅馬史				
萬國略史 (上'下)			40錢	1896. 6월 발행된 『泰西新史攬要』(漢文) 二冊에 附錄된 學部 編輯局의 發行書
萬國史			70錢	皇城, 1907. 3.19, p.4.
萬國史記			7圓	皇城, 1906. 6.23, p.4.
萬國地誌			24錢	1896년 6월 『泰西新史攬要』(漢文) 二冊에 附錄
問答大韓新地誌			25錢	大每, 1908. 8.31, p.4.
美國獨立史		皇城新聞社	45錢 40錢	皇城, 1905. 4.1, p.4. 1907. 5.5. 발행된 玄采 著 『幼年必讀』 附錄된 徵文官 廣告
法國革新戰史		皇城新聞社	50錢	皇城, 1905. 4.1, p.3.
法蘭西新史			45錢	1907. 5.5. 발행된 玄采 著 『幼年必讀』 附錄된 徵文官 廣告
普魯士國厚禮斗益大王七年戰史 全二冊	俞吉潛 譯述		30錢	1907. 5.5. 발행된 玄采 著 『幼年必讀』 附錄된 徵文官 廣告
譜法戰記			40錢	1907. 5.5. 발행된 玄采 著 『幼年必讀』 附錄된 徵文官 廣告
分邦詳密萬國大地圖 全一冊			1圓70錢	1910. 8.21 安泰瑩 編著 『韓日備門尺牘』(全)의 附錄된 東洋書院 特別大發賣 書籍目錄
備門尺牘			1圓	1910. 8.21 安泰瑩 編著 『韓日備門尺牘』(全)의 附錄된 東洋書院 特別大發賣 書籍目錄
備門尺牘錢 全一冊			1圓	
土民必知(漢文)	Hulber		20錢	1896년 6월 『泰西新史攬要』(漢文) 二冊에 附錄
四訂帝國新地理附圖 全一冊			35錢	1910. 8.21 安泰瑩 編著 『韓日備門尺牘』(全)의 附錄된 東洋書院 特別大發賣 書籍目錄
西洋史講話 全一冊			5圓	1910. 8.21 安泰瑩 編著 『韓日備門尺牘』(全)의 附錄된 東洋書院 特別大發賣 書籍目錄

韓國의 近代 西洋印刷術 流入의 影響에 관한 研究

西洋史年表			22錢	皇城, 1910. 1.12, p.4.
世界史 全二冊			3圓60錢	1910. 8.21 安泰瑩 編著 『韓日備門尺牘』(全)의 附錄된 東洋書院 特別大發賣 書籍目錄
世界植民史	이 채우			
世界全圖 一帖			37錢5厘	1910 再版發行 1909년 學部檢定單 『初等本國歷史』에 부록된 廣德書館 出版圖書目錄
世界通史 全一冊			1圓70錢	1910. 8.21 安泰瑩 編著 『韓日備門尺牘』(全)의 附錄된 東洋書院 特別大發賣 書籍目錄
小地球圖(着色)			5錢	1896년 6월 『泰西新史攬要』(漢文) 二冊에 附錄
袖珍世界地圖 全一冊			45錢	1910. 8.21 安泰瑩 編著 『韓日備門尺牘』(全)의 附錄된 東洋書院 特別大發賣 書籍目錄
袖珍二十世紀英文世界大地圖 全一冊			90錢	1910. 8.21 安泰瑩 編著 『韓日備門尺牘』(全)의 附錄된 東洋書院 特別大發賣 書籍目錄
夙惠記略			14錢	1896년 6월 『泰西新史攬要』(漢文) 二冊에 附錄
新訂東國歷史		徽文義塾印刷部	1圓	皇城, 1907. 3.5, p.4.
新增東國輿地勝覽		滙上商店		大每, 1906. 3.11, p.3.
輿載撮要			40錢	1896년 6월 『泰西新史攬要』(漢文) 二冊에 附錄
練藜室記述				
英法露土諸國 利米亞戰史 全二冊	俞吉潛		50錢	1907. 5.5. 발행된 玄采 著 『幼年必讀』 附錄된 徽文官 廣告
外國地誌			60錢	皇城, 1908. 5.7, p.4.
越南亡國史	玄采 역 周時經 역 리상익 역	보성사 로이형 객사 현공림	25錢	大每, 1907. 5.8, p.3. 1907. 5.5. 발행된 玄采 著 『幼年必讀』 附錄된 徽文官 廣告
幼年必讀		徽文官	80錢	1907. 5.5. 발행된 玄采 著 『幼年必讀』 附錄된 徽文官 廣告 皇城, 1908. 5.7, p.4.
幼年必讀釋義			1圓 30錢	皇城, 1908. 5.7, p.4.
六大洲			20錢	皇城, 1910. 1.12, p.4.
意大利獨立史	朴晶東		50錢	大每, 1908. 2.13, p.3.
二十世紀英文世界大地圖 全一冊			40錢	1910. 8.21 安泰瑩 編著 『韓日備門尺牘』(全)의 附錄된 東洋書院 特別大發賣 書籍目錄
이십세기조선론	金大熙		35錢	皇城, 1908. 2.13, p.4.
二十世紀之大慘劇帝國主義 全一冊			15錢	1908년에 발행된 기일著 『누터지교과략』에 附錄된 光學書舖 最新刊 書籍 廣告
李忠武公實記			25錢	1910 再版發行 1909년 學部檢定單 『初等本國歷史』에 부록된 廣德書館 出版圖書目錄
伊太利建國三傑傳 伊太利建國三傑傳 (國漢文) 全一冊		박문서관	30錢 20錢	皇城, 1907. 12.22, p.4. 1908년에 발행된 기일著 『누터지교과략』에 附錄된 光學書舖 最新刊 書籍 廣告
伊太利少年		中央書館	2錢	皇城, 1908. 11.11, p.3.
朝鮮史略			8錢	1896년 6월 『泰西新史攬要』(漢文) 二冊에 附錄
朝鮮歷史三冊			40錢	1896년 6월 『泰西新史攬要』(漢文) 二冊에 附錄
朝鮮地誌			20錢	1896년 6월 『泰西新史攬要』(漢文) 二冊에 附錄
中等東洋歷史詳解 全一冊			1圓50錢	1910. 8.21 安泰瑩 編著 『韓日備門尺牘』(全)의 附錄된 東洋書院 特別大發賣 書籍目錄
중등만국사	俞承兼	唯一書館	70錢	皇城, 1909. 9.8, p.4.
中等萬國新書地志 全二冊			1圓	1907. 5.5. 발행된 玄采 著 『幼年必讀』 附錄된 徽文官 廣告
中等萬國新地誌	金鴻卿	廣學書館	1圓 1圓	皇城, 1910. 4.5, p.4.

					1910. 8.21 安泰瑩 編著 『韓日備門尺牘』(全)의 附錄된 東洋書院 特別大發賣 書籍目錄
	地球槩全一冊			10錢	1907. 5.5. 발행된 玄采 著 『幼年必讀』 附錄된 徵文官 廣告
	地彛			8錢	1896년 6월 『泰西新史攬要』(漢文) 二冊에 附錄
	지리학	A. A. Baird			
	初等大東歷史			30錢	大每, 1909. 8.31, p.4.
	初等大韓地理	安鍾和	廣德書館	25錢	皇城, 1910. 4.5, p.4. 1910 再版發行 1909년 學部檢定畢 『初等本國歷史』에 부록된 廣德書館 出版圖書目錄
	初等大韓地誌 全一冊			20錢	1907. 5.5. 발행된 玄采 著 『幼年必讀』 附錄된 徵文官 廣告
	初等本國略史		興士團	35錢	皇城, 1909. 11.14, p.4.
	初等本國歷史 全一冊			20錢	皇城, 1908. 7.12, p.4. 1907. 5.5. 발행된 玄采 著 『幼年必讀』 附錄된 徵文官 廣告
	初等本國地理		興士團	18錢	皇城, 1909. 11.14, p.4.
	初等歷史	柳 瑾		50錢	皇城, 1910. 5.31, p.4.
	初等地理教科書	國民教育會	國民教育會	70錢	皇城, 1907. 8.1, p.4.
	最新萬國現勢指掌全圖 全一冊			2圓50錢	1910. 8.21 安泰瑩 編著 『韓日備門尺牘』(全)의 附錄된 東洋書院 特別大發賣 書籍目錄
	最新世界大地圖 全一冊			90錢	1910. 8.21 安泰瑩 編著 『韓日備門尺牘』(全)의 附錄된 東洋書院 特別大發賣 書籍目錄
	最新世界歷史 全一冊			2圓50錢	1910. 8.21 安泰瑩 編著 『韓日備門尺牘』(全)의 附錄된 東洋書院 特別大發賣 書籍目錄
	最新世界現勢指掌圖 全一冊			2圓50錢	1910. 8.21 安泰瑩 編著 『韓日備門尺牘』(全)의 附錄된 東洋書院 特別大發賣 書籍目錄
	最新帝國大地圖 全一冊			85錢	1910. 8.21 安泰瑩 編著 『韓日備門尺牘』(全)의 附錄된 東洋書院 特別大發賣 書籍目錄
	泰西新史(國文) 一冊			50錢	1896. 6월 발행된 『泰西新史攬要』(漢文) 二冊에 附錄된 學部 編輯局의 發行書
	泰西新史攬要				
	波蘭末年戰史			40錢	1896. 6월 발행된 『泰西新史攬要』(漢文) 二冊에 附錄된 學部 編輯局의 發行書
	波蘭戰史		皇城新聞社	40錢	皇城, 1905. 4.1, p.3.
	學部檢定 初等大韓地理 全			25錢	
	學部檢定 新撰初等歷史 全四冊			50錢	1910 再版發行 1909년 學部檢定畢 『初等本國歷史』에 부록된 廣德書館 出版圖書目錄
	漢文大韓地誌			40錢	1907. 5.5. 발행된 玄采 著 『幼年必讀』 附錄된 徵文官 廣告
	韓新地志 全一冊			10錢	1907. 5.5. 발행된 玄采 著 『幼年必讀』 附錄된 徵文官 廣告
	漢譯東洋歷史地圖 全一冊			80錢	1910. 8.21 安泰瑩 編著 『韓日備門尺牘』(全)의 附錄된 東洋書院 特別大發賣 書籍目錄
	漢譯萬國興亡史 全二冊			2圓50錢	1910. 8.21 安泰瑩 編著 『韓日備門尺牘』(全)의 附錄된 東洋書院 特別大發賣 書籍目錄
	厚禮斗益大王七年歷史			30錢	皇城, 1908. 5.20, p.4.
傳記 920	國朝人物誌 一帙 三冊			2圓	皇城, 1909. 2.7, p.4.

韓國의 近代 西洋印刷術 流入의 影響에 관한 研究

				1910 再版發行 1909년 學部檢定畢 『初等本國歷史』에 부록된 廣德書館 出版圖書目錄
夢見諸葛亮			50錢	皇城, 1908. 9.4, p.4. 1908년에 발행된 기일著 『누터기교과략』에 附錄된 光 學書舖 最新刊 書籍 廣告
外國地名人名辭典 全 一冊			1圓20錢	1910. 8.21 安泰瑩 編著 『韓日備門尺牘』(全)의 附錄된 東洋書院 特別大發賣 書籍目錄
乙支文德(寫眞並國 文) 全二冊			15錢	1908년에 발행된 기일著 『누터기교과략』에 附錄된 光 學書舖 最新刊 書籍 廣告
乙支文德(寫眞並國 漢文) 全二冊			30錢	1908년에 발행된 기일著 『누터기교과략』에 附錄된 光 學書舖 最新刊 書籍 廣告
日本內閣烈傳		廣印社		1886
彼得大帝傳全一冊			20錢	皇城, 1909. 1.16, p.3. 1908년에 발행된 기일著 『누터기교과략』에 附錄된 光 學書舖 最新刊 書籍 廣告
擘文東國名將傳			40錢	1907. 5.5. 발행된 玄采 著 『幼年必讀』 附錄된 微文官 廣告
華盛頓傳	李海朝	匯東書館	20錢	皇城, 1908. 4.29, p.4. 匯東書館의 發行書籍중 1910년까지의 圖書

* 위의 서적들은 당시의 신문과 도서관 장서 및 실물 목록들의 근거한 것이며 DDC에 의하여
분류하였음.

